

전기통신 전해준 덴마크의 전기 기술자 ‘미륵사’ (彌倫斯 1855~1915)

글 | 박성래 _ 한국외국어대 사학과 명예교수 parkstar@unitel.co.kr

한국의 현대전화가 세계를 하나의 통화권으로 연결해 주고 있는 요즘, 우리 나라가 세계의 최첨단 전기통신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100년 전까지만 해도 조선왕국은 통신의 미개국이였다.

청나라 전신기술자로 조선 땅에 첫발



이 땅에 처음 전기통신을 전해준 사람은 덴마크의 전기 기술자 미륵사(彌倫斯)였다. 그의 원래 이름은 필렌스테트(1855~1915)였는데, 만서른의 나이에 조선에 와서 나머지 삼십 평생을 지낸 사람이다. 전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이 최근에 조금 밝혀지기도 했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외국인 묘지 제2묘역 가=14에 그의 묘가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미륵사가 전신 기술자로 이 땅에 발을 디딘 것은 1885년 7월 12일 제물포(지금 인천) 항구에 도착한 것이 처음으로 되어 있다. 처음에 청나라의 전신 기술자로 왔던 그는 청국이 몰려나자 조선 정부에 고용되어 계속 여기에 살았고, 1905년초 전신전화가 모두 일본인 손에 넘겨지자 일단 직장을 잃게 되었다. 당연히 그는 1905년 이후 자신의 고국 덴마크로 돌아갔을 것으로 생각해왔다. 하지만 그의 무덤이 서울에 있는 것이 밝혀지면서, 미륵사는 1905년 전신 기술자로서 자리를 잃고 나서도 계속해 한국에 살다가 1915년 사망했고, 이 땅에 묻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885년부터 1905년까지 꼭 20년을 이 땅의 전신기술자로 일했던 그가 그 후 10년을 어떻게 살았는지는 아직 밝혀져 있지 않다.

전기통신은 전화가 나오기 전에 전신에서 시작되었다. 1837년에

뉴욕시립대학의 미술교수이며 초상화가인 모스(1791~1872)가 실용적인 전신기를 발명하고, 곧 문자나 숫자를 부호화해서 전달하는 방식을 고안했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었다. 전신은 곧 미국과 유럽에 퍼지고 대륙간에도 통신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세계 곳곳에 진출한 서양 사람들이 그 영향권 안에 놓이게 된 중국이나 일본, 한국 등에도 전신 시설을 확장했음은 당연한 일이었다. 1876년 조선 왕국이 나라 문을 열었을 때 이미 일본과 중국에는 전신이 가설되기 시작하고 있었다. 당연히 조선의 지도자들도 그런 소식을 알고 있었다. 예를 들면 1876년 개국과 함께 조선 정부는 김기수를 첫 수신사로 일본에 보냈다. 일행 60명이 처음으로 개화된 이웃 일본을 살피고 돌아왔을 때, 고종 임금은 그를 만나 “정말로 일본은 전선, 화륜, 농기를 가장 열심히 발전시키고 있느냐”고 물었다.

1870년대 일본이 크게 노력하던 분야가 바로 전신, 증기기관(화륜), 그리고 농업의 근대화였다. 아직 일본과 중국에 비해 크게 뒤져있던 조선에서는 독립적으로 전신을 발전시킬 형편은 못 되었다. 하지만 이미 조선에서 이해가 얽혀 갈등하고 있던 청나라와 일본은 조선에서의 전신 가설에 주도권을 잡으려 애썼고, 그 속에서 조선의 전신선은 설치되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조선에 전신이 설치되기는 1885년 인천과 서울 사이였으며, 그것을 주도한 것은 청나라였다. 그리고 덴마크의 전신 기술자 미륵사가 인천에 상륙하여 한국에서 전신 보급을 맡게 된 것도 사실은 바로 청나라의 전신사업을 위한 것이었다.

원래 덴마크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미륵사는 1881년 26세 때 덴마크에 본부를 두었던 대북전신회사에 전신기술자로 입사했다. 이 전신회사는 덴마크에 세워졌지만, 실제로는 영국, 러시아,

텐마크의 자본이 합쳐 만든 회사로서 당시 극동 진출의 앞장에 서 있었다. 그래서 그 회사의 기술자로서 미륵사는 중국에 가게 되었고, 중국의 전보총국은 그들이 맡은 조선의 전신 건설에 미륵사를 기술책임자로 파견했던 것이다.

인천~서울~의주, 서울~부산 전신선 설치

1885년 서울과 인천 사이의 전신이 개통된 이후 전신사업은 계속 확장되었다. 그해 6월 두 나라는 협정을 맺어 청나라는 조선에 한성전보총국을 세우고, 인천에서 서울을 거쳐 의주까지 이어가는 육로 전신망을 설치하겠다고 계약했던 것이다. 조선 정부에는 그만큼 돈이 없었으므로 중국이 필요한 비용으로 한성전보총국에 은 10만냥을 꾸어주고, 필요한 기술자를 보내주기로 약속했음은 물론이다. 서양기술자, 즉 '양장'이라 불린 미륵사가 바로 그 기술 책임을 맡게 된 것이었다. 1886년까지 이 전신선 건설에 매진하던 미륵사는 1887년에는 그것을 연장하여 서울과 부산 사이에 전신선을 설치하는 작업에도 관여했음을 알 수 있다. 소위 남로전선이 그것이다.

하지만 당시 전선 가설을 놓고 일본과 중국의 다툼이 가열되고 있었다. 조선에서의 영향력 행사에 전선에 관한 주도권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1884년 일본은 부산과 일본 사이에 해저전신을 개통해 운영하기 시작했고, 중국은 1885년 인천과 서울 사이의 육상전신선을 설치했다. 하지만 1887년까지도 청나라의 한성총국은 남로전선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었고, 조선 정부는 그해 2월 독일 상사 세창양행으로부터 3만4천 원을 빌려 직접 남로전선 건설에 나서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그 결과 3월에는 전신 전담관청인 조선전보총국을 창설하고 초대 총관에 홍철주를 임명했다. 미륵사는 원래 중국의 통신 기술자로 고용되어 한국에 왔지만, 이 때쯤부터는 조선 정부의 전신 설치 노력에 고용되기 시작했던 듯하다. 또 이미 그는 한성총국에 양장으로 있을 때부터도 조선 청년들의 교육에 관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1888년 부산과 서울 사이의 전신선이 개통되었고, 5월 전보장정이라는 규정을 정했는데, 외국의 것을 흉내 내어 만든 것임은 물론이다. 또 이 때 국문자모호마타법이라 하여 처음으로 한글전신부호를 제정하기도 했다. 이런 제도를 만드는 데는 미륵사의 자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한글 모르스부호를 만든 사람은 김학우로 알려져 있다. 법무협판이던 김학우는 1894년 10월 3일(음력) 한기석에게 살해당했다. 암살당한 그가 만든 한글 모르스부호가 오늘날까

지 통용되고 있는 셈이다.

남로전선이 개설된 3년 후인 1891년에 서울과 원산을 잇는 북로전선도 개설되었다. 이 북로전선이야말로 함경도를 거쳐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연결되어 명실 공히 동양 3국의 주요 간선으로 발전할 꿈이 담겨진 전신선로였다. 이렇게 서서히 전기통신의 독립 단계로 접어들던 조선의 전신은 1905년 2월 노·일전쟁의 시작과 함께 일 본을 완전히 넘어가고 말았다.

1884년에 이미 일본과 부산 사이에 해저전신을 가설하여 조선과의 연결선을 확보하고 있던 일본은 1894년 청·일전쟁으로 중국을 몰아내고 조선에서의 주도권을 확립했고, 그 10년 뒤에는 통신마저 장악하게 된 것이다. 청·일전쟁중인 1895년 2월 산둥성 위하이 위의 전보국에서 미륵사는 일본군의 포로가 되어 일본의 사세보 수용소로 끌려갔던 것으로 기록은 전한다. 하지만 곧 석방된 그는 다시 한국에 들어왔다. 그는 한국에서 일할 것을 자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1896년 6월부터는 농상공부 통신원 전무교사로서, 전무학도의 교육을 담당하는 한편, 전신사업에 대한 기술지도와 해외자문 및 기획고문 등의 일을 맡았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1899년 12월 조선정부는 그를 3품의 주임관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1905년 초 통신권이 일본에 넘어가면서 미륵사의 조선 관리 생활도 끝나고 말았다.

관리로서 교육, 기술지도, 해외자문 등 담당

텐마크 통신기술자인 뮐렌스테트는 60평생의 반 이상을 중국과 한국에서 살았다. 특히 그는 청나라가 조선의 전신선을 설치하면서 조선에 와서 일하기 시작, 그 후 청·일전쟁으로 중국이 물러나자 조선정부에 고용되어 일했고, 1905년 일본이 통신권을 장악하자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마지막 기간인 1904년 12월에는 여러 날 동안 황성신문에 그가 낸 이사 광고도 보인다. '본인이 서학현을 떠나 회동 덕관 뒤 소양옥으로 이사했사오니 지구는 조량하시오. 미륵사 고백'이란 내용이 그것이다.

그가 연속해 조선 정부에 고용됐었다는 사실과 봉급 등의 기록은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아직 밝혀져 있지 않다. 특히 그는 일본의 통신권 장악과 함께 조선 정부에서 파면당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귀국 여비와 상여금 요청은 거절당했다는 기록도 보인다. 그런 상태에서 그가 귀국했던 것인지 아닌지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채, 그의 무덤은 지금 마포구 합정동의 외국인묘지에 있음이 밝혀진 것이다. ㉔